



수계(水界)산업 기반 조성에 일조할 터

수 산업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 호수 등 물 속에 사는 동식물을 유용하게 이용·개발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구분은 고래로부터 눈에 보이는 식량자원인 생물을 이용했던 단순한 산업 활동이 고착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과학적 기술의 발달로 바다의 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심해로, 해저로, 또 미생물의 세계로 그 새로운 개발영역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도 그 개념의 한계를 넘어 서야 한다. 즉 수산업의 발전적 개념, 수계(水界)산업이 그것이다.

이 같은 수계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의 수산 환경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육상 기원 오염원으로 인한 연근해 어장의 황폐화, DDA나 FTA 체결 등 국제 무역 환경 변화, 연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연근해 어장의 축소 등으로 협의로 구분되는 수산업의 그 산업적 가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수산업의 정의를 수계와 연관된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수계산업으로 전환할 때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을 찾는다.

어업인들이 수계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어촌 어항 어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이다.

어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어촌 기초 조사를 비롯, 어항 및 어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어항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어항의 어선 안전 수용률이 74%에 불과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관리가 매우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세 번째는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이 하는 일이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어장침적폐기물 처리사업, 쓰레기 수매 사업을 적극 수행하였고, 어항정소선 7척과 다기능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해양환경 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와 쾌적한 어촌 정주공간 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올해 우리 협회는 어촌지역의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앞으로 연안역의 개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작년 용역업무로 처음 실시한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고유업무로 확보하여 운용한다.

전문인력 10명을 투입, 105개 국가어항에 대해 년 2회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어항 내 어선 항로의 모래 준설 처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정화사업에도 더욱 매진하게 된다.

올해에는 어장 침적 폐기물 처리 뿐만아니라 인공어초 주변 어장이나 양식어장 주변 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우리 협회가 어촌관광 길라잡이로 자리매김하는 한해가 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5都 2漁”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도시민들을 어촌으로 안내한다.

또 어업인들이 주체적으로 도시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어업인들이 쾌적한 어촌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깨끗한 어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잘 조성된 어항에서 양륙, 가공, 유통하는 고부가가치 시스템을 구현하고 일반국민들이 공원같은 어촌 어항을 방문하여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개발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향후 대대로 바다를 이용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 즉 수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우리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나아갈 길이다.

